

철도노조 파업 상황(12.5, 15시) : 운행률 77%, 파업참가율 22%
- 국토부 2차관, 수송대책 점검... “국민 안전과 편의 확보 최우선”

□ 12월 5일 기준 출근대상자 12,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,870명으로 파업 참가율*은 22.1%이다.

* '23 파업당시 첫날 파업참가율 21.7%

□ 열차운행 현황(12.5. 15:00 기준)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77.6% 운행* 중이며,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13.3% 운행 중이다.

* KTX 73.8%, 여객열차 67.4%, 화물열차 40.9%, 수도권전철 83.3%

○ 출·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%(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%), 퇴근시 85% 운행할 계획이다.

* GTX-A, 인천공항철도, 서해선 등 민자운영 노선은 모두 정상운행 중

□ 한편, 12월 5일(목) 오후 4시30분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(비상대책 본부장)은 세종청사 6층에 설치된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, 코레일 노사 교섭 경과를 보고 받고 열차 운행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.

□ 백 차관은 “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철도를 이용하시는 ‘모든 국민들’이라고 강조하면서, “파업 첫날인 오늘 오전 비상열차와 대체인력 투입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, 파업 상황으로 출퇴근 시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, 경각심을 갖고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”을 주문했다.

○ 아울러, “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, 하루 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”한다고 밝히면서, “현재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담당 부서	비상수송대책본부	책임자	상황실장	오송천 (044-201-4802)
		담당자	총괄반장	유용일 (044-201-3971)

